



# OPEC會議, 原油價 소폭 인하

## 重質油 50 · 中質油 20센트씩

OPEC(석유수출국기구)는 지난 7월 22일 제네바에서 열린 石油相회의에서 이란, 알제리, 리비아 등 3개국을 제외한 10개 회원국들이 아랍 重質油를 배럴당 50센트, 아랍中質油를 배럴당 20센트씩 각각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에 따라 아라비안 헤비는 종전의 배럴당 26달러 50센트에서 26달러로, 그리고 아라비안 미디엄은 종전의 배럴당 27달러 40센트에서 27달러 20센트로 인하되었으며, 아라비안라이트와 아라비안 헤

비의 가격차는 종전의 배럴당 1달러50센트에서 2달러로 확대되었다.

또 OPEC는 1천 6백만B/D의 현행 생산쿼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이라크, 에콰도르, 카타르, 가봉의 생산쿼터 증량요청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3일 비엔나에서 임시총회를 소집, 논의하기로 했다.

OPEC는 다음 정기총회를 오는 12월 7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OPEC의 油價인하가 국내油價에 미치는

### 共同聲明 (요지)

제 74차 OPEC총회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는 수브로토 인도네시아 에너지相을 의장에, 벨카셈 나비 알제리 에너지相을 교체의장에 각각 만장일치로 재선출했다.

이번 총회에 업저버로 참석한 멕시코 대표단을 환영하고, 현재와 같은 석유정세하에서도 OPEC에 대한 지지와 결속을 보여준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총회는 마나 사이드 오타이바 아랍에미리트 연합 石油相이 주재하는 시장감시위원회의 보고서와 경제국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油價구조 및 석유시장의 안정방어를 위한 그들의 임무를 재확인했다.

총회는 아메드 자키 야마니 사우디 아라비아

石油相이 의장직을 맡고 있는 油價차등조정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수결 원칙에 입각, API 31°의 아라비안 미디엄 원유가격을 배럴당 20센트, 그리고 API 27°의 아라비안 헤비를 50센트씩 인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표결에서 알제리, 이란, 리비아 3개 회원국은 가격인하에 동의하지 않았다.

총회는 급변하는 시장상황에 비추어 油價차등위원회가 OPEC 油種間의 가격차 문제에 대해 조정작업을 계속할 것을 결의했다.

총회는 야마니 石油相이 주재하는 각료 집행이사회의 경과보고서를 검토하고, 앞으로 계속 작업하여 다음 정기총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사무총장 선임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총회의장에 사무국업무를 계속 관장토록 했다.

다음 정기총회는 12월 7일 개최될 예정이다.

영향을 보면, 복합도입단가는 배럴당 9센트가 떨어져 0.2%의 국내油價인하요인이 생기지만, 울들어 지난 7월말까지 환율이 6%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환율부담의 일부를 완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OPEC의 油價인하조치로 생기는 외화절감액은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5백62만3천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 解 說

OPEC(石油輸出國機構)는 이번 총회에서 가중평균으로 배럴당 14센트를 인하함으로써 국제석유시장에서 카르텔의 지위를 고수하겠다는 결의를 공식 표명했다. 그러나 이 결의에 리비아, 알제리, 이란등 3개 회원국이 「無用의 조치」라면서 반대를 표명했으며, 트레이더들도 OPEC의 소폭인하조치가 석유시장의 안정을 보장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이번의 油價인하조치는 OPEC로서 자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할 능력이 없음을 확인시킨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現석유정세에 대한 대응실패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끄는 온건산유국들과 알제리가 주도하는 강경 산유국들간의 이견과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OPEC가 호황을 누리던 시절에는 은폐될 수 있었으나, 현재와 같이 OPEC가 곤경에 처하게 됨으로써 표면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OPEC의 이번 油價인하조치로 아랍헤비는 배럴당 26달러, 아랍미디엄은 27달러 20센트가 되었으며, 가중평균으로는 배럴당 14센트가 인하된 셈이다. 그러나 이 정도의 油價인하는 現實市況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석유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조정이 重質油에 국한하여 소폭에 그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시황악화가 주로 重質油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겨울철 성수기를 맞으면서 重質油수요가 회복되어 호전될 것이라는 관측과, 최근 OPEC의 지속적인 감산에 따라 현물시장이 비교적 堅調勢를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현재와 같이 생

산량을 1,600만B/D 이하로 유지해 갈 경우, 전반적인 시황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그리고 현재 선진공업국들의 비축물량이 최저수준이기 때문에 OPEC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산유량등에서 계속 결속을 유지해 갈 경우 선진국들의 비축수요가 3/4분기를 고비로 크게 늘어나라는 전망등 주요 OPEC회원국들의 하반기 석유시장에 대한 낙관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란, 리비아, 알제리등 강경국들이 가격인하 조치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들 국가들이 주로 輕質油를 생산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이해관계의 작용도 있었겠으나, 기본적으로 이 국가들은 생산량의 조절 또는 정치적 충격요법으로 油價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던 점에 비추어 그들이 이해관계를 기초로 한 주장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사우디아라비아등 온건 아랍국의 OPEC 주도에 다소나마 제동을 걸어보자는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74차 OPEC총회의 결정은 가격인하폭이 소폭이었다는 점에서 이것이 현격한 수요자극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최근 악화된 시황에 대한 OPEC의 대응결정이 일단 매듭지어졌다는 점에서는 그 동안의 대기성 수요가 구매력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 시황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이 구조적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며, 특히 겨울철 수요증가까지 안정세를 지속할 있을 것인가의 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油價인하를 단행한 멕시코, 이집트 등이 다시 油價를 OPEC 수준으로 재조정하지 않는 한, OPEC회원국들의 판매전략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결국 변칙판매 행위는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OPEC의 이번 결정사항은 최근의 重質油를 중심으로 한 수요격감에서 오는 단기적 시장상황에 대한 응급조치일 뿐, OPEC 내부의 기본적 문제들은 아직 해결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사우디 아라비아등 OPEC 주도국들의 제안은 MEC(각료급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의 생산량과 판매행위를 통제함으로써 석유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MEC의 활동영역은 제품과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판매 방법에 있어서도 폭넓은 규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석유시황을 기초로 하여 볼 때, 이 MEC의 활동도 OPEC의 다른 위원회와 다름없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지난 7월 5일 비엔나에서 열렸던 OPEC 石油相회의에서는 「모든 위약행위의 拂拭」을 전원 합의로 선언한 바 있으며, 또 MEC의 강화로 이를 수행토록 한다는 합의도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 수사(Rhetoric)가 시황을 지배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OPEC로서 나름대로의 계산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요즘과 같은 惡況에서 까다로운 문제를 제

기하기보다는 시황호전이 예상되는 오는 9, 10월 이후에 강력한 MEC의 활동을 기초로 질서를 잡아가자는 뜻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계산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기에는 많은 난관이 있으면, 특히 이런 난관들은 주로 OPEC 내부의 문제들이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은 선진국의 비축수준의 문제이다. 최근 정유회사들은 현물시장에서 구입한 原油를 즉각 정제에 투입하는 각박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최근 輕質油를 중심으로 한 현물가격이 비교적 堅調勢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그리고 보면 금년 3/4분기 이후 석유시장은 OPEC가 자체결속을 통해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

□ 消費國動向 □

# 日本석유유통업체 집약화

## 日本丸紅과 大丸石油 합병

日本 석유유통업체의 집약화가 표면화되고 있다. 최근 日本石油 계열의 특약점인 日石丸紅과 大丸石油은 내년 4월에 합병키로 결정했다.

日石丸紅과 大丸石油은 모두 日本石油와 丸紅이 각각 절반씩 출자하고 있는 석유판매회사로 日本石油로부터 석유공급을 받고 있다. 日石丸紅은 직영점 25개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판매점 62개소등 모두 87개소의 주유소를 보유하고 있고, 東京을 비롯 전국에 7개 지점을 두고 있는 日本石油系의 大특약점의 하나이

다. 한편 大丸石油은 직영 5개소, 판매점 3개소 등 모두 8개소의 주유소와 자동차용 LP G충전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日本석유유통업체는 현재 주유소가 약 5만 9천개소, 판매업자가 약 3만 5천社로 과당경쟁체질이다.

앞으로 양사는 새 회사의 社名, 본사소재지, 사장, 자본금등 합병에 따른 제반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 결정할 예정인데 日石丸紅과 大丸石油의 합병은 日本 석유유통업체의 집약화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職務에는 본분을

# 生活에는 분수를